

역행하는 예언자: ‘하강과 상승 모티프’의 관점에서 본 요나의 여정 이해*

김경식(감신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의 12소예언서에 포함된 요나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완성도 높은 플롯과 흥미로운 주제로 인해 성서 독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책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요나는 열왕기하 14:25에서 ‘북이스라엘 왕실 주변’에서 활동하며, 국가의 확장과 번영을 예언했던 예언자로 그려진다. 열왕기하 본문의 맥락에서 선지자 요나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성공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낸다.¹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나서는 이방

* 본 논문은 제128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5.4.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신명기사가의 방향성과 다르기 때문에, 코간과 타드모는 이 본문이 실제적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신명기사가 이전의 자료라고 주장한다. Mordecai Cogan/Hayim Tadmor, *2 Kings*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62-163.

땅에서 제국의 악함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 요나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요나서에서 그려지는 요나는 열왕기서의 단편적인 기록과 달리 입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도 한다.² 월터 브루그만은 요나서가 열왕기하 14:25에 짙막하게 언급되어 있는 요나에 대한 일종의 주석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³ 이러한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면 열왕기하 14장의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를 엄격히 구별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변영을 예언했던 예언자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앗수르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도 있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요나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요나가 요나서의 말미까지 이방 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던 이유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나서의 플롯을 영웅 신화의 ‘하강과 상승 여정’ 도식에 기반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⁵ 영웅의 ‘하강과 상승

2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나서가 포로기나 그 이후의 시대에 저술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는 참고 문헌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라. Ehud Ben Zvi, *Signs of Jonah: Reading and Rereading in Ancient Yehud*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7-8n19. 벤 즈비는 열왕기하 14장의 요나 이야기와 요나서 사이에 존재하는 장르와 메시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별개의 작품”으로 읽히도록 의도되었다고 주장한다. Ehud Ben Zvi, *윳글*, 55-56. 최근 연구에서 조내연 또한 최근 연구에서 본래 열왕기서에서 언급된 요나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예후드의 엘리트들에 의해 변형되었고, 이 모습이 요나서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조내연,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두 요나: 열왕기하 14장과 요나서 요나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30권 3호 (2024년 9월), 276-303.

3 Walter Brueggemann, *1 & 2 Kings* (Macon: Smyth&Helwys, 2000), 444.

4 모르테카이 코간은 열왕기서에 묘사된 요나를 ‘국수주의적인 열광주의자들’(nationalistic enthusiasts)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Cogan, M. (2024). *The Book of Jonah: A Parody of the Northern Prophet Jonah Son of Amittai*. *TheTorah.com*. <https://thetorah.com/article/the-book-of-jonah-a-parody-of-the-northern-prophet-jonah-son-of-amittai> (2025년 8월 18일 접속)

5 ‘영웅’이라는 표현은 초월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성격을 갖춘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말하는 ‘영웅’은 그러한 신화적 전형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로 정의된다. 곧, 영웅성의 핵심은 초월적인 능력 보다는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맡겨진 책임을 이

여정' 도식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화나 문학, 그리고 영화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모티프로, 한 인간이 고난과 역경과 같은 삶의 하강이 수반되는 경험을 통해 보다 고양된 인간, 즉 영웅으로 상승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겉으로 볼 때에 요나서는 전형적인 하강(물고기 뱃속)과 상승(니느웨를 향한 예언 선포)의 서사 구조를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책은 그 말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요나서의 열린 결론은 요나라는 인물과 그가 행한 일들을 평가하고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과연 요나가 회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언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나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본 연구는 캠벨의 영웅 신화 도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나서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도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 도식이 요나서에서 완전히 '전복'되어 '역행의 영웅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역행의 서사 도식에서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시종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방 제국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영웅 서사와 하강과 상승 모티프

필자는 '영웅 서사'의 주된 구조인 '하강과 상승 모티프'를 통해 요나서를 살펴볼 것이다. '하강과 상승 모티프'는 작품의 주인공이 극심

행함으로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www.kci.go.kr

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패턴을 가리킨다. 종교학, 신화학, 심리학과 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하강과 상승 모티프가 고대 신화나 민담, 혹은 종교적 서사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하강은 일반적으로 죽음, 어둠, 심연 등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하고, 상승은 재탄생, 깨달음, 새로운 생명의 획득과 같은 질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⁶

그 가운데에서도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의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방대한 신화들을 분석하여, ‘원질신화’(monomyth)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신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웅 신화의 기본 구조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⁷ 캠벨은 특히 칼 융(Carl Jung)의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문화 현상을 집단 무의식(the collective unconscious) 내지, 원형(archetype)의 발현이라 생각했다. 즉, 인류가 공유하는 특정한 상징 체계나 이야기 패턴이 존재하는데,⁸ 하강과 상승 모티프 또한 이러한 체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융

6 다음을 참고하라. Vladimir Propp, *Morphology of the Folk Tale*, 2nd ed.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25-65;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7), 197-201;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158-162.

7 ‘원질신화’(monomyth)라는 용어는 캠벨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1939년에 발표한 실험 소설 *Finnegans Wake*의 한 단락(p.581)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조이스가 소설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신화적 패턴을 상징하는 듯 하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은 매우 난해한데 조셉 캠벨은 이 소설에 대한 해석 가이드 북을 저술하기도 했다. Joseph Campbell/Henry M.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4).

8 대표적으로 ‘신발’에 관한 모티프를 예로 들 수 있다. 신데렐라와 콩귀퀴쥐 이야기는 모두 ‘신발’을 통해 주인공의 변화된 정체성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성서에서도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는 기록한 장소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며(출 3:5; 수 5:15),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의무를 포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신 25:7-10; 룻 4:7-8).

은 심리학적으로 하강과 상승 패턴을 분석한다. 그는 인간 내면의 깊은 무의식으로의 하강 없이는 결코 자기(Self)의 완전한 인식, 즉 개성화(individuation)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하강과 상승을 인간 심리의 원형적 패턴으로 간주하여, 하강은 무의식의 어둠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며, 상승은 그로부터 얻는 자아의 확장과 성숙이라고 설명하였다.⁹

이러한 응의 이론에 근거하여 캠벨은 다양한 신화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영웅의 여정(hero's journey) 패턴을 '정체성의 변혁'을 상징하는 인간의 통과 의례에 근거한 것이라 보았으며,¹⁰ 이를 바탕으로 '출발-입문-귀환'으로 요약되는 영웅 서사 구조를 제시하였다.¹¹ 캠벨이 제시한 영웅 서사 구조의 보편성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이 문학적 도식과 인간의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성이 효과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과 경험을 통해 삶의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낸다. 이 과정은 계속된 주기와 같이 반복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때, 개인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 모티프 안에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¹² 즉, 영웅 서사에서 나타나는 하강과 상승 모티프는 단순히 인위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의 요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과 심리 기제가 이야기에 반영된 패턴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원

9 Carl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 F. C. Hull(trans.),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3-41.

10 Joseph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Commemorative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4), 3-23.

11 Joseph Campbell, *유타*, 45-233.

12 “가정(안전한 세계) → 사회로 나감(도전) → 시련(역경 경험) → 변혁(성숙) → 귀환(사회에 기여)”.

에서 공감과 설득력을 불러일으키는 영웅 서사는 여전히 다양한 소설이나 영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¹³

캠벨이 제시하는 영웅 서사 구조와 각 단계의 성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웅의 여정은 ‘출발’로부터 시작한다. 출발이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던 영웅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 변화에 대한 요구는 대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저항과 거절을 수반한다.¹⁴ 이 변화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턱’을 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자 하는 결단이다. 영웅 서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문’이다. 이 단계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주인공은 대개 시련과 유혹을 경험한다. 이 시련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한 뒤에는(주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단계에서 주인공은 신을 대면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귀환’으로 이 단계에서 주인공은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영웅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김기홍, “캠벨의 원질신화와 문화콘텐츠”, 『통일인문학』 66집 (2016년 6월), 136-141.

14 이는 성서의 ‘소명 장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성서 내에서 반복되는 소명 장면에 대한 패턴 구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Kyoungsik Kim, “Adaptation of the Genres of the Call Scene in Esther 4 and the Battle Report”, Ph.D. Dissertation, (Ramat Gan: Bar-Ilan University, 2020), 23-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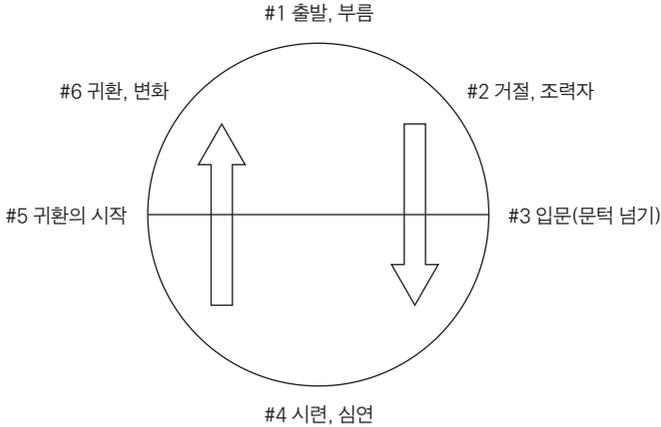


그림 1. 조셉 캠벨의 영웅 신화 도식¹⁵

위의 도식에서 나타나는 주된 움직임은 ‘하강’과 ‘상승’이다. 하강 모티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입문 단계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정신적, 혹은 상징적인 하강 과정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심연으로의 하강’, 즉 죽음에 가까워지는 물리적, 정신적 추락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은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강 속에서 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자기 모습에 직면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 결국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상승’하여 본래의 자리로 귀환하게 된다. 즉, 여기서 제시되는 주인공의 하강은 상승을 위한 발판이며,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길가메시 서사시나 단테의 신곡 등과 같은 고대 신화 및 서사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 이 도식은 다음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Joseph Campbell, *윗글*, 45-226.

그리고 신약성서 또한 예수가 부활하기 전, 땅속 깊은 스올에 머물렀음을 말하고 있다(벤티전 3:18-20). 이러한 차원에서 ‘하강과 상승 모티프’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찰과 변화는 바로 너무나도 깊은 심연까지 이르는 하강에서 비롯된다는 인류의 공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웅 서사의 보편성을 고려해 본다면 ‘하강과 상승’ 모티프를 구약성서의 요나서에 대입하여 읽어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조셉 캠벨 또한 빌 모이어스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된 저서 *Power of Myth*에서 요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배 속은 소화 작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창조되는 컴컴한 곳입니다.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는 사실상 보편적인 신화적 주제의 한 예입니다. 영웅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다시 나와 변화되어 귀환하는 이야기이죠. (왜 영웅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어둠 속으로 하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고래는 무의식에 잠겨 있는 생명의 힘을 상징합니다. 은유적으로 물은 무의식을 가리키고, 물속의 생물은 의식적인 자아를 압도하고 이를 무력화하고, 극복하며, 통제해야만 하는 무의식의 생명력 또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¹⁶

캠벨은 요나가 바닷속 물고기의 배 속으로 표상되는 깊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극복함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요나는 정말로 끝내 그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으로 변화했던 것일까?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캠벨이 제시한 영웅신화 도식에서 출발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캠벨의 ‘전형적인 도식’을 요나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보다는, 위에서 언급

16 Joseph Campbell, *The Power of Myth*, Betty Sue Flowers(ed.), (New York: Doubleday, 1988), 147.

한 캠벨의 도식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보편적 인간 경험과 심리 기제가 요나서에서 다분히 변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칙성을 통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필자는 요나가 캠벨의 도식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나가 고래 뱃속이라는 심연의 장소까지 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조명하는 열린 결론부에 대한 이해를 도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캠벨의 모델에 나타난 서사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적용함으로써 요나서가 인간 성찰의 근본적인 한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요나의 여정

먼저 요나의 하강 모티프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자는 지리적인 관점과 문학적인 차원에서 요나서의 히브리어 본문을 관찰할 것이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며, 2장에서 완전한 심연에 이르게 된다.¹⁷ 이러한 요나의 하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지리적인 방향성과 문학적 표현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함축된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여정의 시작 (‘라아’의 상승)

요나 1:2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었던 명령의 내용을 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요나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는 제시되지 않

17 임태항, 「성경이 고인 연못, 요나서」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24), 21.

고 있다. 다만, 요나가 니느웨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제시될 뿐이다. 이유를 언급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들(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이 내 앞에 올라왔다”(עֲלֶיָהֶם רָעָה לְפָנָי)이다.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가 온라인으로 구축한 「의미론 성서 히브리어 사전」(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에 따르면,¹⁸ ‘라아’(רָעָה < רָעַע)는 세 가지 의미 범주에서 정의되는데, 이는 (1)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정(Wrong), (2) 잘못된 행위나 문제 등으로 인해 초래된 재앙과 화(Wrong > Unsafe),¹⁹ 그리고 (3) 특정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분노(Wrong > Angry) 등으로 정의된다.²⁰ 이런 차원에서 (1)은 인간의 ‘악함’을 주로 의미하고(창 6:5; 출 10:10; 삿 9:56; 욥 1:2 등), (2)는 특정한 문제(악한 행위를 포함)로 인해 초래된 곤란과 위기의 상황, 혹은 하나님 혹은 권력자의 처벌 행위를 가리키며(출 32:12; 삼하 17:14; 왕하 22:16; 사 47:11; 예 7:7; 욥 1:7, 8; 3:10; 4:2,6 등), (3)은 특정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분노를 묘사

18 SDBH는 성서 번역 소프트웨어인 Paratext의 개발자이자 언어학 전문가인 Reinier de Blois가 주도하는 가운데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ies)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사전의 핵심은 어형(morphology)이나 어근(root) 중심이 아니라, 단어가 실제 사용된 문맥(context)과 그 속에서 갖는 의미(function)를 중심으로 단어를 설명하려는 데 있다. 기존의 사전이 주로 어근을 중심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해석하려 했다면, SDBH는 단어가 다양한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해 의미 영역(lexical domain)에 따라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Reinier De Blois, “Towards a New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Based on Semantic Domains”, PhD dissertation, (Amsterdam: Vrije University, 2000); ‘A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Phil A. Noss(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Ann Arbor, MI: United Bible Societies), 275-295.

19 ‘Wrong > Unsafe’나 ‘Wrong > Angry’ 등의 표시는 해당 단어의 의미가 위치한 의미군(semantic range)의 범위를 나타낸다. Wrong은 보다 큰 맥락의 의미군, 즉 ‘부정’을 나타내며, Unsafe와 Angry는 이 맥락에 종속되는 하위 의미군인, ‘불안전’과 ‘분노’에 각 단어의 의미가 속함을 가리킨다.

20 “רָעָה”,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United Bible Societies, <https://marble.bible/dictionary?s=006851000000000&db=Hebrew> (2025.3.1. 접속). 이 사전 항목에 따르면 구약 본문 전체에서 (1)의 의미는 126번, (2)의 의미는 185번, 그리고 (3)의 의미는 단 두 번 사용된다.

올리다)은, 요나서의 이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출 40:25; 사 20:26; 대상 1:6; 예를 들어, 삼하 6:17 לִפְנֵי יְהוָה וַיַּעַל דָּוִד עֹלוֹת). 이러한 측면에서 이 구절은 ‘종교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니느웨 백성들은 ‘예물’이 아니라, 종교적 ‘악함’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함의는 요나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나, 3장에서 종교적인 금식을 하며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드러나는 요나서의 강조점은 이방인들의 종교적 회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치를 강조하기도 한다.²⁴ 하나님의 위치는 나중에 요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된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극심한 풍우 속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웠고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묻는데, 요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욘 1:9 וְאֵת־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אֲנִי יִרָא).²⁵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언급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금 강조한다.

이 짧은 구문은 요나 여정의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라이’, 즉 ‘악함의 상승’이다. ‘악함의 상승’은 이 세상의 질서나 신의 권위를 전복시키려는 부정적 상승이다. 그리고 니느웨를 ‘큰 성읍’(הָעִיר הַגְּדוֹלָה)이라 강조하는 전반부의 표현과 부정적 상승의 모티

24 Niditch, 윗글, 32-33.

25 요나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문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며, 요나가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북왕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신학이 강조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3:5의 ‘헤이칼’(הַיְכָל)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 11:4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Niditch, 윗글, 61.

프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 이야기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도시와 탑을 만들어’(וּרְאִשׁוֹ בְּשָׁמַיִם) (בְּבִנְיַת-לְנֻ עִיר וּמִגְדָּל וְרֹאִשׁוֹ בְּשָׁמַיִם)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욕망을 묘사하는 바벨탑 이야기(창 11:1-9) 사이에 존재하는 유비적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요나서의 첫 부분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도시와 제국)이 스스로 상승하고자 하는 부정적 모습이다.

2) 요나의 하강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나에게 니스웨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영웅 신화 도식에 따르면 영웅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요나는 어떠한 여정을 떠났는가? 1:2-3의 구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קוּם לךְ אֶל-נִינְוָה ...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1:3 וַיִּקָּם יוֹנָה לְבָרַח תְּרַשֵּׁיפָה מִלְּפָנַי יְהוָה

1:2은 하나님이 ‘위’에 있고 ‘라아’가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올라 오게 되었음을 말한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니스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려 한다. 1:3의 מִלְּפָנַי와 2절의 לְפָנַי와 대조되고 있는데 이는 요나의 본래 위치가 ‘하나님 앞’, 즉 ‘위’였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요나는 이미 부름에 응답한 예언자로서 ‘상승’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요나 여정은 영웅의 여정 도식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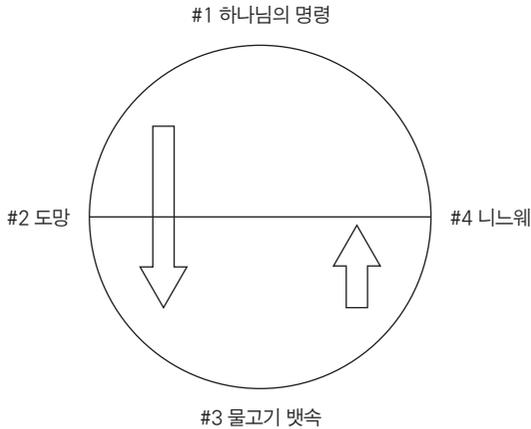


그림 2. 요나의 여정 도식 (역행의 여정)

많은 주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는 계속해서 하강하며,²⁶ 이러한 요나의 하강은 ‘아라드’(אֲרָד) 동사로 표현된다.²⁷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요나는 먼저 읍바로 ‘내려간다’(יָרַד, יָרַדְתִּי).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의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서편의 항구 도시 읍바는 높은 중앙 산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곳이고, 어디에서든 ‘내려가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요나는 그곳에서 ‘때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배의 움직임은 분사 시제형 동사(בָּאֵתָּ)로 표현된다. 이러한 분사 표

26 엄태항, 윗글, 21; Robert Alter, *Strong As Death Is Love: The Song of Songs, Ruth, Esther, Jonah, and Daniel,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140; Philip P. Jenson, *Obadiah, Jonah, Micah* (New York: T&T Clark, 2008), 46.

27 이 동사는 물리적인 하강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하강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창 37:35; 민 16:30; 욥 7:9; 시 28:1 등).

현은 주 동사와 함께 일어났던 ‘동시적 행위’를 나타낸다.²⁸ 이는 특별한 계획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던 요나가 ‘마침’ 자신이 향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떠나고 있던 배를 만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요나는 운이 좋게도 막 움직이고 있던 배를 찾아 탑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의 제비가 뽑히게 된다.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은 다른 성서 본문에서 종종 플롯의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룿기에서 룿이 ‘우연히’(룿 2:3 וַיִּקַּר מִקְרָהּ) 이르게 된 곳은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들판’이었다.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왕이 잠이 오질 않아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꺼내 읽게 했을 때, 하필이면 그 때에 모르드개의 과거 공적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에 6:2 וַיִּמְצָא כְּתוּב).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문맥에서 우연한 사건들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읽히게 된다.²⁹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요나서 1:2를 제외하고는 요나서 1장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연성의 모티프’는 요나의 역행하는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하강 또한 하나님의 통제안에 있음을 드러낸다.³⁰

요나는 샅을 지불한 후에 배 안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וַיִּרֶד בָּהּ).³¹

28 Niditch, 윗글, 34; W. Dennis Tucker Jr., *Jona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16.

29 Kyoungsik Kim, “Adaptation of Genres”, 114-115.

30 요나가 의도한 행선지 다시스(Tarshish)는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요나의 시각에서 이 곳은 하나님이 ‘부재한’ 곳으로 여겨졌을지 모른다. 필립 켄슨(Philip P. Jenson)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편적인지, 아니면 지역적인지에 관한 신학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Philip P. Jenson, 윗글, 45.

31 「개역개정」은 이를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의역이며, 원문의 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최근 발간된 「새한글성경」은 “배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잘 번역하고 있다.

즉, 요나가 배에 탑승하는 장면 또한 ‘내려가는’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요나가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요나의 하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배가 순조롭게 출항을 하기는 했지만,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극심한 풍우를 만나게 된다. 요나 1:5은 그 당시, 요나가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음을 묘사한다(מְרַגְמֵי כַּבֵּב וַיִּשְׁכַּב וַיִּזְנֶה יָרֵד אֶל־יַרְכָתַי הַסְפִינָה וַיִּשְׁכַּב). 요나는 배에 탑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는 ‘누웠고’(וַיִּשְׁכַּב), ‘잠을 잤다’(וַיִּרְמֵ). 니디치는 666 어근은 쉽게 깨어나지 않는 ‘기절’에 가까운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기도 하고(창 2:21; 사 4:21),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게으름을 나타내는 표현(잠 10:5)이라 지적한다.³² 또 다른 한편으로 요나 1장의 문맥에서 מְרַגְמֵי 구문은 형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나는 형태로 계속된 요나의 하강을 나타내는 666 어근을 상기시키기 위한 내레이터의 의도적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는 물리적으로도 하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강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³³ 풍랑으로 인해 배가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결국 요나는 자원하여 바다에 던져진다.

3) 요나의 기도: 상승에 대한 소망과 기대

하나님이 준비한 거대한 물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בְּטֶן תַּיִם)에 있다고 고백한다(2:3(2)). 구약성서에서 ‘스올’은 죽은 이들의 영역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 여겨지지만(시 6:5; 사

32 Niditch, 윗글, 42. 혹은 깊은 잠을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체험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다음을 보라. 윤동녕,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선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고대근동 종교와 문화의 관점으로 본 요나서”, 「선교와 신학」 45집 (2018.6), 185.

33 Jonathan Magonet, *Form and Meaning: Studies in Literary Techniques in the Book of Jonah* (Bern: Herbert Lang, 1976), 17.

38:18; 호 13:14), 스올은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고 구원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장소로 이해된다(시 16:10; 139:9; 호 13:14).

요나 역시 스올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쏬이 지적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다시스로 향하는 바닷길 깊숙한 스올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다.³⁴ 여기서 2:3b와 출애굽기 2:23b-24a를 비교해 볼 만하다.

וַתַּעַל חוּל 2:23b-24a וַיִּשְׁמַע אֱלֹהִים אֶת-נְאֻקָּתָם ... וַיִּשְׁמַע אֱלֹהִים אֶת-נְאֻקָּתָם
 מִבְּטֶן שָׂאוּל שְׁוֹעֵתִי שְׁמַעַתָּ קוֹלִי 요나 2:3b

이 두 구절 모두 고통 가운데에서의 ‘부르짖음’(שוּע)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שמע)고 표현하고 있다. 요나서에서는 ‘스올’(שָׂאוּל/아래)을 통해,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알라’ 동사(עלה/위)를 통해 부르짖는 자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위치가 드러난다. 그런데 3인칭으로 서술되는 출애굽기와 1인칭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나서 사이에는 어감 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3인칭으로 서술하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음을 확고히 한다. 그러나 1인칭으로 서술되는 요나의 기도는 ‘자기 고백’ 내지 ‘자기 해석’에 머물 뿐이다. 존 홀버트가 이 구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여전히 요나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³⁵ 실제 2장 전체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언급 외에는 어떻게 요나에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 기도 형식

34 Sasson, 윗글, 172.

35 John C. Holbert, “Deliverance Belongs to Yahweh!': Satire in the Book of Jonah”, *JSOT* 21 (1981), 71.

을 통해 전달되는 요나의 생각과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³⁶

홀버트는 계속해서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이 기도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요나는 3절에서 “당신이 나를 깊은, 곧 바다 한복판에 던졌습니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초래된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다시 주의 성소를 바라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앞선 내러티브의 흐름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홀버트는 요나가 “내 잘못(*O mea culpa*)을 당신의 잘못(*O Sua culpa*)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한다.³⁷

이러한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고백은 계속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결과, 자신이 완전히 “산들의 뿌리까지 하강”했지만 (2:5(6) לְקַצְבֵי הָרִים וְיַרְדֵּי),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올리셨다”(2:6(7) וַתַּעַל מִשְׁחַת חַיִּי יְהוָה אֱלֹהֵי)라고 선포한다. 여기서 ‘올라가다’를 의미하는 עלה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히궤형)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을 드디어 ‘상승’ 시키셨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상승’의 강조는 성소를 언급하는 그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나는 2:7(8)에서 자신의 기도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³⁸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며,³⁹ 이와

36 몇몇 학자들은 요나서 2장이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후대의 첨가일 가능성도 제시한다. 그러나 ‘역행의 여정’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이 기도문은 이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37 Holbert, 윗글, 72.

38 위 각주 25를 참고하라.

39 다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인 아모스와 호세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과 사회적 불의를 주되게 고발

거의 평행하는 구문인 역대하 30:27을 보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לְשָׁמַיִם) 하나님의 전을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위치가 요나가 궁극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위치이다.

וַתָּבוֹא תְּפִלָּתָם לְמַעַן קָדְשׁוֹ לְשָׁמַיִם 역대하 30:27
וַתָּבוֹא אֵלָיו תְּפִלָּתוֹ אֶל־הַיְיָ 요나 2:8(7)

이와 같이 요나는 ‘스올’, ‘산들의 뿌리’, 그리고 ‘구덩이’에서 요나의 처음 자리였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상승’할 것임을 스스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스올과도 같은 완전한 하강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⁴⁰ 그리고 일반적인 캠벨의 도식의 순방향을 따라 간다면 요나는 성숙된 자기 성찰의 자리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요나서 후반부의 이야기는 분명히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요나는 고양되고 성숙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영웅의 여정과 달리 요나는 하강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확신에 더욱 깊숙이 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비판하고 있다.

40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해 보라. 그리고 이 논문에는 요나의 기도예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김상래, “요나의 기도(욘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구약논단』 53집 (2014.9), 223-255.

4. 요나는 상승했는가?

요나서 3장과 4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상술하고 있다. 2:10[11]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육지(הַיַּבֵּשׁתָּה)로 토해졌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3:1-2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한다. 1:1-2에서와 동일한 상황이 3:1-2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שְׁנִיתָ)라는 표현은 반복과 차이를 강조한다.⁴¹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3:2 קוּם לָךְ)라고 명령하고,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3:3 וַיָּקָם יוֹנָה וַיֵּלֶךְ אֶל-נִינְוָה). 이러한 요나의 반응은 1장에서 언급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주하기 위해 일어나 옴바로 내려갔다”(1:3 וַיֵּרָד יוֹנָה מֵעִירָאֲשֵׁרֵי נִינְוָה וַיֵּרָד יוֹנָה לְבֵרֶת תַּרְשִׁישָׁה מִלִּפְנֵי יְהוָה וַיֵּרָד יוֹנָה וַיֵּרָד יוֹנָה)와 완전히 대조된다. 이런 맥락에서 3:3의 ‘가다’를 의미하는 ‘할라크’(הָלַךְ) 동사는 1:3의 ‘내려가다’를 의미하는 ‘아라드’ 동사(יָרַד)와 대조되는 ‘요나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3:3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니느웨를 수식하는 표현이다.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니느웨는 עִיר-נְדוּלָה לְאֱלֹהִים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서 신명 표현(לְאֱלֹהִי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다소 모호하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를 도시의 큰 규모(‘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41 Phyllis Trible, “Studies in the Book of Jonah”, Ph.D. dissertation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63), 185. 그리고 1:1-2과 3:1-2의 대칭 구조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Phyllis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09-117을 참고하라.

를 강조하는 관용어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따금 사용되기도 한다(삼상 14:15; 창 23:6 참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있는 문자 그대로 ‘신들’ 혹은 ‘하나님’으로 이해하여 ‘신들’ 혹은 ‘하나님’에게 속한 큰 도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⁴² 요나서에서 ‘엘로힘’은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이방신과 하나님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1장에서 선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엘로힘’을 부른다(1:5). 그리고 잠을 자는 요나를 깨워 그의 ‘엘로힘’에게 부르짖으라고 부탁한다(1:6).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엘로힘’이 ‘여호와’임을 알려준다(1:9). 이 풍랑이 ‘여호와’ 때문이라 믿었던 선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1:14), 풍랑이 멈추자, 이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1:16). 요나서 1장의 풍랑 사건은 이방인들이 ‘엘로힘’을 ‘여호와’로 인식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준다.⁴³ 요나서에서 ‘엘로힘’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요나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도시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상 그 모든 존재(니느웨를 포함하여)는 ‘여호와’ 하나님(1장에서 요나가 말하고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요나서는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나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요나서의 내레이터는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의 명령을 내린다(욘 1:1-2; 3:1-2). 그런데 이 명령에는 요나가 가야 할 ‘장소’와 ‘외치라’는 행위에 관해서만 언급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외치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누양

42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Tucker, 윗글, 67-68.

43 윤동녕은 이를 여호와 종교의 배타성을 탈피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윤동녕, 윗글, 195.

스는 물고기 에피소드에도 나타나고 있다. 2:10의 전반부 구문인 לָהֶן יְהוָה וַיֹּאמֶר יְהוָה(여호와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에 여호와와의 직접 담화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호와가 전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2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 물고기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만을 서술한다(물고기가 요나를 욕지에 토해 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실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⁴⁴ 이러한 순종적인 물고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요나의 모습과 대비된다.

요나에게 전해진 여호와의 명령과 요나의 행위 또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여호와는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는 그 내용을 요나의 행위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를 듣고 요나가 행한 행위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하나님의 명령 | 요나의 행위 |
|---|---|
| קום לך אֶל־נִינְוָה הָעִיר 1:2a; 3:2a הַגְּדוּלָּה | וַיֵּלֶךְ אֶל־נִינְוָה 3:3a כְּדַבַּר יְהוָה |
| | וַיִּנְיֹנֶה הַיָּתֵה עִיר־גְּדוּלָּה 3:3b לְאֱלֹהִים מִהַלֵּךְ שְׁלֹשֶׁת יָמִים וַיַּחַל יוֹנָה לְבֹא כְּעִיר מִהַלֵּךְ 3:4a יוֹם אֶחָד |
| וַקְרָא עָלֶיהָ כִּי־עָלְתָה כְּעָתָם לִפְנֵי 1:2b וַקְרָא אֵלֶיהָ אֶת־הַקְּרִיאָה 3:2b אֲשֶׁר אָנֹכִי דֹבֵר אֵלֶיךָ | וַיִּקְרָא וַיֹּאמֶר עוֹד אַרְבָּעִים 3:4b יוֹם וַיִּנְיֹנֶה נְהַפְּכָת |

44 Tucker, 윗글, 62.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행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요나의 행위에서 변칙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3:2a와 3:3a는 요나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내레이터는 니스웨 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리고 요나가 얼마 동안 니스웨 성을 다녔는지 언급한다. 3:3b에 따르면 니스웨는 3일 동안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매우 큰 성이다. 그런데 3:4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단 하룻길’(מִן אֶרֶץ יִשְׂרָאֵל)만을 다닌다.⁴⁵ 즉 요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니스웨 성 전체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3:2b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최초의 명령이었던 1:2b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 도시를 향해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전치사(‘-을 향해’)가 1:2b에서는 עָלַי인데 반해, 3:2b에서는 אֵלַי 전치사가 사용된다. 1:2b에서 עָלַי는 ‘적대적’인 의미로(against) 사용되기 때문에, 심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אֵלַי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3:2b에서는 적대적인 뉘앙스가 사라진 것으로(toward) 이해되어야 한다.⁴⁶ 이러한 하나님 명령의 변화는 1장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회개와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네게 명한 바’(3:2 אֲנִי הִבֵּר אֵלַי)로 표현되는데 분사형 동사 הִבֵּר는 ‘현재’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을 전하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즉, 다소 적대적이었던 최초의 뉘앙스와는 달라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해야 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니스웨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45 강철구, “심판 선언 양식을 통해 본 니스웨에 대한 요나의 숨은 의도”, 『구약논단』 73권 (2019.9), 144.

46 조내연, 『윗글』, 294-205.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심판 예언의 성격(1:2)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네게 명한 바’(אָנְכִי הִבְרֵךְ אֵלֶיךָ)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2b와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조합하여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컸기 때문에(1:2b),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뒤엎어질 것이라(3:4b הִנְפֹּקֶת)’⁴⁷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요나는 니느웨성이 40일 후에 뒤엎어질 것이라는 내용만 전달하고 있다. 전복의 이유(니느웨 백성의 악함)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는 이러한 요나의 외침은 예언의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신명기 전통에서 참된 예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지만(신 18:19; 이를 테면 אָמַר יְהוָה כֹּה, 요나는 이 예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히지도 않는다.⁴⁸ 그리고 구약의 예언 전통에서 심판의 예언은 단순히 심판의 성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⁴⁹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인데(겔 18:23; 율 2:12-13),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심판이 임하는 원인을 생략함으로 회개의 가능성마저 차단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요나의 행동을 통해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⁵⁰

47 요나의 문맥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게 여겨진다. 사손과 니디치는 이 단어가 물리적인 몰락과 파국을 의미하면서도(창 19:21; 신 29:22; 암 4:11), 마음의 변화(‘심령이 뒤바뀌어질 것이다’)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호 11:8). Sasson, 윗글, 234-235; Niditch, 윗글, 88.

48 강철구, 윗글, 139-140.

49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은 요나가 예언의 성취 문제(신 18:1-2)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학의 옹호자로 그려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Hyun Chul Paul Kim, “Jonah Read Intertextually”,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126.3 (2007), 509.

50 도즈만은 요엘서 2:1-17과 요나서 3:1-4:11의 본문을 내재적 성서 해석(Inner Biblical Interpret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요엘서의 메시지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요엘서의 ‘배타적인 하

그럼에도 니스웨성의 상황은 요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놀랍게도 니스웨 백성들은 파국의 이유를 듣지 못했음에도 요나의 선포에 즉각 반응하여 재를 뿌리고 금식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혹은 신)을 믿었다”고 표현된다(3:5 וַיֵּאֱמְנוּ אֲנֹשֵׁי יִנְיָהּ בֵּאלֹהִים). 즉, 니스웨 백성들은 모호한 요나의 선포에서 ‘하나님(신)’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니스웨 사람들의 하나님(신) 인식에 대한 언급은 3:8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신)께 부르짖었다”(וַיִּקְרְאוּ אֶל-אֱלֹהִים). 그리고 12소예언서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טוב 동사로 이들의 회개의 모습이 묘사된다(3:8 וּמִן-הַחַמָּס אִישׁ מִדְּרָכּוֹ הִרְעָה וּמִן-הַחַמָּס). 이 부분에서 1:2에서 언급되었던 심판의 이유, 즉 ‘라아’(רָעָה)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니스웨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나서 1장의 선원들과 달리 니스웨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스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¹ 니스웨 사람들이 인식했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던 ‘신’ 존재인지 모호하다. 사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권능으로 니스웨 백성들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요나서가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⁵²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니스웨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나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불분명한 예언

나님의 자비’ 개념이 요나서에서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을 보라. Thomas B. Dozeman,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of Yahweh’s Gracious and Compassionate Character”,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108.2 (1989), 207-223.

51 Jenson, 윗글, 75

52 Sasson, 윗글, 244.

을 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니스웨를 향해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예언을 선포 했다. 진정한 변화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간 요나는 이제 부름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하다. 그는 하나님이 니스웨에 대한 심판을 멈추자(3:10) ‘분노’를 표출한다(4:1). 이 구절에서 요나의 분노는 앞서 언급했던 רעע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로 표현된다. 아래를 보라.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1:2

אִישׁ מִדָּרְכוֹ הָרָעָה וּמִן־הַחֲמָס 3:8

וַיִּרַע אֱלֹהִים וְרָעָה גְדֹלָה וַיַּחַר לוֹ 4:1

위 구절들에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쌓여 올라올 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라아’가 니스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해결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4장에서 이 ‘라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표출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유가 하나님이 니스웨를 향한 심판을 거둘 만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항변한다(4:2).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수식은 출애굽기 34:6과 요엘 2:14에서 인용한 것이다. 요나는 앞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야 드러나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주하려 했던 이유이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니스웨 백성들과 요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요나가 역행의 여정을 떠났고, 결국 퇴행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니스웨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성에서 나가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스웨 성이 어떻게 될는지 살핀다(4:5).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앓음으로 모든 활동을 멈춘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는 데 반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까지 요나는 설득되지 않는다. 이는 요나가 완전히 역행하여 부름 받기 전의 완고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니스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지만, 요나에게 남은 것은 '라이'뿐이었다.

요나가 요나서 후반부에서 보이는 변칙적인 행동, 즉 성경의 나타난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의 태도는 제국에 대한 그의 적대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왕기하 14:25에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국경 확장을 예언한 예언자로, 당대 왕권과 국가의 번영을 지지하는 친왕조적인 예언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성향은 민족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적대적인 이방 제국의 구원이나 회복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행하는 예언자'가 된 까닭은 이방 제국에 반감을 가진 요나의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나서의 내레이터는 자민족중심적 구원관에 집착하는 폐쇄적 신앙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스스로 성찰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조명한다.

5. 결론: 스스로 상승할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성

요나서는 전통적인 영웅 신화의 도식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복하며, 현실적인 인간 존재의 복합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책이다. 영웅 서사의 핵심적인 ‘하강과 상승’ 모티프는 위기를 통해 성찰과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전제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전환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며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에도 반발하는 역행하는 예언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요나의 역행은 요나서의 문학 구조 안에서 치밀하게 묘사된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지리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을 반복하며, 읍바 항구, 배 밑창, 바다, 물고기 뱃속으로 하강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강은 전통적인 영웅 서사처럼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자기 확신과 국수주의적 선민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후 요나는 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고 예언을 선포하지만, 그 내용은 회개의 여지를 배제한 단편적 선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에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오히려 분노를 표출한다. 요나의 이러한 변칙적이고 역행하는 태도는 자민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구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요나는 이스라엘 왕궁의 성공을 예언하는 열왕기하 14:25의 요나의 성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요나는 하강과 표면적 상승을 경험한 듯 했으나 그는 결국 역행하였고,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변화와 성숙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요나서는 자기중심적인 인간 예언자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차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배타적인 구원관과 지나친 선민의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요나서의 내레이터는 요나의 실패를 통해, 인간 스스로 상승하여 완전한 변화와 성숙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

참고문헌

- Alter, Robert, *Strong As Death Is Love: The Song of Songs, Ruth, Esther, Jonah, and Daniel,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 Brueggemann, Walter, *1 & 2 Kings* (Macon: Smyth&Helwys, 2000).
- Campbell, Joseph,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Commemorative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4).
- _____, *The Power of Myth*, Betty Sue Flowers(ed.), (New York: Doubleday, 1988).
- Campbell, Joseph/Robinson, Henry M.,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4).
- Cogan, Mordecai/Tadmor, Hayim, *2 Kings* (Garden City, N.Y: Doubleday, 1988), 162-163.
- Cogan, Mordecai, "The Book of Jonah: A Parody of the Northern Prophet Jonah Son of Amittai", *TheTorah.com*. <https://thetorah.com/article/the-book-of-jonah-a-parody-of-the-northern-prophet-jonah-son-of-amittai> (2025.8.18 접속)
- De Blois, Reinier, 'A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Phil A. Noss(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Ann Arbor, MI: United Bible Societies).
- _____, "Towards a New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Based on Semantic Domains", PhD dissertation (Amsterdam: Vrije University, 2000).
- Dozeman, Thomas B. "Inner-Biblical Interpretation of Yahweh's Gracious and Compassionate Character",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108.2 (1989), 207-223.

- Ehud Ben Zvi, *Signs of Jonah: Reading and Rereading in Ancient Yehud*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 Eliade, Mircea, *The Sacred and the Profan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7).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 Holbert, John C., “‘Deliverence Belongs to Yahweh!’: Satire in the Book of Jonah”, *JOT* 21 (1981), 59-81.
- Jenson, Philip P., *Obadiah, Jonah, Micah* (New York: T&T Clark, 2008).
- Jung, Carl 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 F. C. Hull(trans.),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 Kim, Hyun Chul Paul, “Jonah Read Intertextually”, *Journal of the Biblical Literature*, 126.3 (2007), 497-528.
- Kim, Kyoungsik, “Adaptation of the Genres of the Call Scene in Esther 4 and the Battle Report”, Ph.D. Dissertation, (Ramat Gan: Bar-Ilan University, 2020).
- Magonet, Jonathan, *Form and Meaning: Studies in Literary Techniques in the Book of Jonah* (Bern: Herbert Lang, 1976).
- Niditch, Susan, *Jonah: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3).
- Propp, Vladimir, *Morphology of the Folk Tale*, 2nd ed.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 Sasson, Jack M., *Jonah* (New York: Doubleday, 1990).
- Trible, Phyllis,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_____. “Studies in the Book of Jonah”, Ph.D. dissertation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63).
- “רָעָה”,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United Bible Societies, <https://marble.bible/dictionary?s=006851000000000&db=Hebrew> (2025.3.1. 접속).
- 김기홍, “캠벨의 원질신화와 문화콘텐츠”, 『통일인문학』 66집 (2016년 6월), 131-159.
- 김상래, “요나의 기도(욘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구약논단』 53집 (2014.9), 223-255.
- 엄태향, 『성경이 고인 연못, 요나서』 (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24).
- 윤동녕,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선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고대근동 종교와 문화의 관점으로 본 요나서”, 『선교와 신학』 45집 (2018.6), 177-203.

조내연,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두 요나: 열왕기하 14장과 요나서 요나의 비교 연구”, 『구약논단』 30권 3호 (2024년 9월), 276-303.

검색어

요나서, 심판 예언과 용서, 하강과 상승 모티프, 영웅 서사, 보편주의와 배타주의

[ABSTRACT]

The Regressive Prophet: Understanding Jonah's Journey through the Motif of Descent and Ascent

Kyongsik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Book of Jonah through the lens of Joseph Campbell's "descent and ascent" motif in heroic narratives, reinterpreting Jonah's journey not as a typical transformative ascent, but as a narrative of regression. While traditional hero stories depict the descent into crisis as a precursor to renewal and growth, Jonah's descent—marked by geographic and symbolic downward movement into the depths of the sea and the fish's belly—leads not to transformation but to a deeper entrenchment in self-centered attitudes.

The analysis draws attention to the continuity between the Jonah of 2 Kings 14:25, who is portrayed as a pro-monarchic prophet proclaiming territorial restoration, and the Jonah of the prophetic book, who resists God's mercy toward the enemy nation of Assyria. Jonah's refusal to fully carry out God's commission and his anger at Nineveh's repentance reflect his adherence to an ethnocentric theology that limits divine grace to Israel alone.

Although Jonah outwardly obeys God by proclaiming judgment to Nineveh, his message lacks clarity, divine attribution, and openness to repentance. Despite Nineveh's genuine turn from evil, Jonah reacts with anger, highlighting his unresolved inner conflict. This inversion of the

www.kci.go.kr

hero motif ultimately reveals the limits of the human prophet. Jonah appears to rise, but fails to undergo the inward transformation essential to heroic ascent.

The Book of Jonah, therefore, offer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ritique of exclusive salvation, emphasizing that true transformation—both individual and communal—requires transcending self-interest and embracing the universality of divine mercy.

key words

Book of Jonah, Prophecy of Judgement and Forgiveness,
Descent and Ascent Motif, Heroic Narrative, Universalism and Exclusivism

투고일: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2025년 0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